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호·영남 '맞손'

문화재청장·10개 지방자치단체장 협약 체결 송하진 도지사, 상생발전 초석 계기 마련 도내 유적 동부권 751건·출토유물 2284건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경남도청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화재청장(김종진)과 전라북도지사(송하진), 경상북도지사(이철우), 경상남도지사(김경수) 등 3개 광역단체장과 남원시장(이환주), 고령군수(곽용환), 김해시장(허성곤), 함안군수(조근제), 창녕군수(한정우), 고성군수(백두현), 합천군수(문준희) 등 기초자치단체 7개 시장 군수가 참석했다.

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가 지난해 국정 과제제책 이후 전북도는 전북가야 선포식을 갖고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전북가야를 역사의 중심에 올려놓았다"고 강조하면서, "호·영남이 함께 노력하여 가야고분군을 반드

시 세계유산에 등재시켜 지역 장벽을 해소하고 상생발전하는 초석을 쌓아 국가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24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세계유산 유산 범위를 기존 3개 고분군(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 함안 말이산)에서 7개 고분군(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고분군)으로 유산 범위를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함께 협력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체결한 것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문화재청을 포함한 11개 광역기초단체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 재정적 필요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등재

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 추진, 등재 이후 통합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가야고분군은 3세기 후반부터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왕과 지배층 고분의 출현과 소멸을 통해 가야의 성립과 발전을 보여주는 복복적인 증거이다.

또한, 고대 동아시아 국가 형성기 대륙과 해양,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기술의 교류를 고고학적 증거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류역사에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은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금년 3월 28일 호남가야유적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 542호)로 지정(40필지 98.25㎡)된 전북가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인지도 향상으로 수혜여행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이 세계유산 확대 추진대상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2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발굴과 정비에 더욱 더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전북도에는 동부권 7개 시군에 751건의 가야유적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출토유물도 2284건에 이른다. 특히 제철과 봉수유적은 전북가야의 독자적인 문화로 조명 받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금년에 50개 사업 1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 사적지정 대상 11개 유적을 선정 발굴을 통한 고증 자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2021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힘찬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가야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호 영남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새농민 전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 28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인구 증대 위해 도·시군 안간힘

도, 인구증대 공동대응 위한 도·시군 협업회의 개최

전북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인구정책 관련부서와 14개 시군 인구 담당부서가 참석하여 전라북도 인구증대를 위해 도·시군 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라북도 인구정책 추진현황과 인구정책 대토론회 계획 등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에서는 인구 증대를 위한 우수 사례 및 발굴된 신규시책을 공유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남원시는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늘이 무너져도 내 짝은 있다'라는 주제로 청춘남녀 30명 대상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프

로젝트를 소개했다. 임실군은 돌봄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돌봄센터 설립(2018년~2022년 2억)과 귀농청년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지원을 통한 청년이동 농촌취업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2018년도에 선정된 인구관련 공모사업은 총 5건으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임실군의 행복나로컬푸드 공동체 구축과 김제시의 '활력충진! 사람살기 좋은 성산별곡' 2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은 남원시 '지리산권 거점형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 공모사업에는 익산시 '기움뜰 우리네 공부방', 순창군 '순창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가 선정되어 총 5개사업(22억)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군 협업회의를 통해서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13억 인도시장 공략 첫 발' ... 新남방정책특위 공식 출범

산하에 30명 규모 추진단 구성... 신재현 외교정책 비서관 단장 역 위원장 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위원에 기재·외교·행안·산업 차관

13억 인구의 인도시장을 공략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남방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신 남방정책 특별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 남방정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외교사자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때 '신 남방정책' 구상을 처음 공개한 뒤, 9개월 만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본격적으로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외연 확장 전략 중 하나다. 신 북방정책과 함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니렌트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 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 남방정책 특위는 정세균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구성됐다.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차관이 김현철 위원장을 보좌하는 구조적 틀을 갖췄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신

남방정책과 관련해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신 남방정책의 3대 축인 '3P' 정책을 소개했다. 김 보좌관은 "첫 번째가 People(사람들)이다. 신 남방국가 국민과 교류협력력을 증대시키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Prosperity(번영)"라며 "공동번영을 실현해 신 남방국가들과 교역을 더욱 확대해 상생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Peace(평화)"라며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할 뿐 아니라 그 토대를 한반도 동북아까지 확장해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 정책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남방특위에서는 순방하지 않은 국가의 개별 프로젝트까지 준비해 발제하고 실천하는 역할까지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위는 문재인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신 남방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특위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또 관련 부처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실적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뉴시스

농촌진흥청, 정읍에서 '행복농업 이동상담 장터' 가져

농촌진흥청이 28일 정읍에서 '행복농업 이동상담 장터(이하 이동상담 장터)'를 가져다. 농촌진흥청과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에 따르면 '이동상담 장터'는 전문가들이 영농 현장에서 시설과 토양, 작물을 진단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종합 컨설팅이다.

이동상담 장터에는 정읍지역 애호박 재배 농업인 4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애호박 연작 피해를 줄이는

요령과 토양 관리와 병해충 방제 방법, 생리장애로 인한 기형과 발생 원인과 해결법 등을 중점 교육했다. 또 품질과 수량이 현저히 저조한 농가들

을 방문해 시설과 토양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간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영농능력로 기술 해법을 제시, 농가의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은행-전북군산의료원, 사회공헌·의료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북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의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두형진 전북은행 부행장 조찬우 수송동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전북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 이호성 관리부장, 류용희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협약식을 통해 전북은행과 전북군산의료원은 협약을 통해 각 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공동 참여 사회공헌분야 시너지창출을 위한 정기적 상호교류 실시, 각 사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전북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환자중심병원으



로 앞으로도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역공헌활동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과 전북군산의료원은 사회공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9월 5일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한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명을 대상, '사랑 한가득 주먹밥' 행사를 펼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태기자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시골아있네!

원광대학교

창업선도대학 | 1학과 1특허 1기업 창업 프로그램
아시아 중심대학 | 아시아 중저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 | 국내 대학 최초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획득
경쟁력 있는 대학 | 정부 재정지원 사업 1,243억 수주(전국 상위권)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8. 9. 10(월) ~ 9. 14(금) ☎ 063-850-5262~4(입학관리과)

프라임 사업 대학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OK-)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교육부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ISO 26000 이행수준 최고등급 획득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